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엡1)

성경: 엡1:1-2

목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알려 주는 것,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려고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성경의 많은 책들 강해, 올해에는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을 강해하려 한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강해,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1).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동서 무역이 활발하여 윤택했으며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행19:21－41).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고 유대인들도 얼마쯤 있었다. 바울은 여기서 사역을 잘 완수하였으나(행19; 20:17－38) 이교도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주제: 교회의 소명과 성도들의 합당한 행위, 목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영광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에베소서는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으며 바울은 자신이 회심시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 면에서 굳건히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엄청난 규모의 다이애나 신전을 항상 접하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이 모퉁잇돌이 되는 건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중요함을 보여 줄 필요를 느낀 사도는 건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것을 훌륭하게 묘사한다(2:19－22). 에베소서는 은혜, 영원한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화평과 용서, 효능이 넘치는 은혜의 능력에 의한 회심,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회의 신비, 성도들의 생활 등과 같은 중요한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에베소서는 6장, 155절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핵심 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1:3)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1:22; 5:23)

영적 교훈: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라.

에베소

행18:19부터 계2:1까지 총 17회 나옴

이곳은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이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이곳은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이곳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다이애나 신전(행19:35)이 있었고 황제 숭배와 신비 종교, 마술 등이 성행하였다. 또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자유 도시로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었다. 그러나 에베소가 얻은 명성은 이교도들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어디서나 행해지는 부도덕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결국 그곳은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몰락하였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곳에서 직접 2년 이상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목회하기도 했다(행18-20 참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경고하며 세운 교회로서 영적으로 활기에 넘친 교회였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했으며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여 주었다. 4개의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회당도 있었다(행18:19; 19:17).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러 얼마동안 전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 두고 떠났고(행18:21) 3차 선교 여행 때에 다시 이곳에 들러 오래 체재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행19:10).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을 여기에서 보내며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밧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뒤 다시 이곳에 왔다가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동시에 엄숙한 경고를 주시기도 했다(계2:1-5). 에베소 교회는 600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뒤에 마리아 숭배 등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어 결국 그곳의 등잔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었다. 부유하던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항구는 역병이 들끓는 늪지가 되고 말았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2년 이상 목회한 교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염려가 잘 드러나 있다.

위어스비, 메인 아이디어, 맥아더, 매튜 헨리 등의 주석

에베소서 개관

바울 서신의 특징: 앞부분 교리, 뒷부분, 성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I. 교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복(1-3장)

A.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복(1:4-14)

1. 아버지로부터(1:4-6)

2. 아들로부터(1:7-12)

3. 성령님으로부터(1:13-14)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명을 요청하는 첫 번째 기도(1:15-23)

B.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2:1-22)

1. 죄들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짐(2:1-10)

2. 화해하게 되어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감(2:11-22)

강건함을 요청하는 두 번째 기도 3장 (2-13은 괄호 부분)

II. 의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책임(4-6), 이것이 성화이다

A. 하나 됨 안에서 걸어야 한다(4:1-16)

B. 순결함 안에서 걸어야 한다(4:17-5:17)

1. 이방인들처럼 걸으면 안 된다(4:17-32)

2.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한다(5:1-6)

3. 빛의 자녀로서 걸어야 한다(5:7-14)

4. 조심해서 걸어야 한다(5:15-17)

C. 조화를 이루며 걸어야 한다(5:18-6:9)

1. 남편과 아내(5:18-33)

2. 부모와 자식(6:1-4)

3. 주인과 종(6:5-9)

D. 승리 속에서 걸어야 한다(6:10-24)

여러 가지 주제

1장: 선택과 예정, 구원과 구속, 교회와 이스라엘, 양자 삼으심, 성령님의 봉인과 보증, 상속 유업, 지혜와 계시의 영, 2장: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 은혜, 긍휼, 믿음, 이방인, 성전, 3장: 신비, 청지기직, 속사람, 하나님의 권능, 영광, 4장 하나 됨, 한 몸, 영적 선물, 목사, 복음 전도자, 노동관, 5장 죄와 구원, 성령 충만, 결혼, 6장 부모 공경, 노사 관계, 영적 전쟁

에베소서 1장 요약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먼저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사 자신의 영적 자녀로 맞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 곧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영적으로 조명을 맏아 밝아지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서 봉인되고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들어가는 글: 자신이 개라고 생각한 오리

과학자들은 출생 직후의 오리들에게 각인 작용이 쉽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각인 작용' 이란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오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오리는 알에서 갓 부화되었을 때 대개 맨 처음 보는 대상이 자기 엄마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때때로 엉뚱한 결과를 빚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미 개가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갓 태어난 새끼 오리는 그 어미 개를 처음 보는 순간 자기 엄마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는 어미 개를 졸졸 따라다니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미 개 뒤로 숨으며, 밤에는 그 옆에 가서 잠을 잔다. 새끼 오리는 하루 종일 어미 개와 함께 현관 앞에서 지내다가 차가 집 앞에 들어서면 어미 개와 함께 차 앞으로 달려나가 요란하게 꽥꽥 짖어대고 타이어를 물어뜯으려 한다.

그렇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오리는 여전히 꽥꽥 짖어대고, 물을 즐기며, 날개를 퍼덕인다. 때로는 오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익히며 살아왔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비슷해졌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로이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다(고후 5:17). 새로운 창조물,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옳은 것을 믿고 행동하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써도 바른 것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우리 삶에 불쑥 끼어들고, 우리는 현관 앞에서 어미 개와 놀고 있다가 꽥꽥 사납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가 타이어를 물어뜯는다.

우리는 누구인가? 타이어를 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맑고 푸른 호수에서 헤엄을 치면서 가끔씩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어 물풀을 뜯어먹고 부리로 깃털을 가다듬고 알을 낳는 것이지, 자동차를 향해 짖어대거나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실패한 아담 종족의 일원으로, 우리 안에 죄의 짐을 지고 있다(롬7장),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분명히 그리고 일관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신분 혹은 정체성을 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고, 그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완전히 즐기는 것이며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일곱 가지 영적인 복(엡1)
구약의 복을 신약의 복으로 착각하지 말라

성경: 엡1:1-3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강해 시작, 지난 주 에베소서 전체 개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직접 목회한 교회(행19:9)

AD 62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들과 함께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에베소서를 기록함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교회, 성도의 성화와 영적 싸움 등 여러 주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한 가장 심오한 내용을 품고 있다. 성도의 정체성

오늘 〈 〉, 하나님의 뜻, 신약 시대 성도들의 복

목표가 올발라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남의 복을 내 복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사도와 하나님의 뜻(1)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한다.

사도는 누군가에 의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파송됨

신약 교회의 초기에는 열도 사도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있었다.

사도의 조건 행1,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 사도의 표적들(고후12;12)

지금 이런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100% 거짓 사도이다.

그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참으로 어려고도 귀중한 표현인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 신약성경 23회

예수님을 믿은 뒤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한다.

당연하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이 직접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원 등이 번창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직접 음성이나 계시로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는 직접적인 뜻이 있고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혼, 직장, 이사, 진학 등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릴 결정에 관한 것(허용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다닌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

골수 유대교 랍비, 나중에 공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가말리엘의 문하생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

목적 딤전1:12-13, 16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로 생활하며 늦은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조망해 가면서 쓸 수 있는 말이다.

2-30대 목사,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것은 망발이다.

지금 바울과 같이 30여 년 동안 복음 선포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말

롬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마찬가지, 남을 위로할 때는 OK, 그러나 나에게 적용하려면 죽을 때 가서 해야 하는 말이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신실한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성도, saints,신구약 성경의 구원받은 자들, 원래 뜻, 거룩히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다른 부류가 아니다. 히브리식 표현, 같은 것을 반복할 때 쓰인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이런 뜻으로 보면 좋다.

신실하다는 것은 매우 좋은 말이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 믿음직하다는 말, 믿음에 국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이다.

은혜와 화평(2)

은혜와 화평, 은혜는 에베소서에 12번, 여기서는 매일 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히4:16)

은혜의 왕좌로 들어간다(히4:16).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고전1:4; 3;10)

화평, 평안함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요14:27)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면 은혜와 화평이 넘친다.

에스라 성경 사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3)

이제부터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복을 이야기한다.

그 복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다.

하늘의 처소들(엡1:3; 20; 2:6; 3;10), 총 4번, 우리의 위치(2:6)

우리의 복: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지난 60년 간 믿음 생활, 여러 교회를 다녔다.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 잘 살아 보세, 조용기 목사 등의 오순절 순복음 운동, 로버트 슐러의 긍정적인 삶, 베니 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행복의 힘, 최고의 날은 오늘, 최고의 삶은 지금(*)

핵심: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지금 잘 된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복은 다 물질적인 복, 땅에서 잘 되는 것, 사업, 자녀, 재산, 학교, 공부, 결혼, 이사, 진급

금요일 저녁 한 분의 이야기

하나님은 복을 담고 있는 저수지, 저수지에서 파이프가 내게로 연결되어 있어 수도 꼭지를 틀기만 하면 복이 쏟아져 들어온다. 교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수도꼭지 트는 것을 알려주는 일

대개 교회에 충성해라.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새벽기도, 주일 성수, 십일조, 모든 모임 참석

이러다 보니 일주일의 대부분을 교회에 가서 살아야 한다. 주차 봉사, 성가대 등등, 주일이면 새벽 4시부터 종일 뛰어다녀야 한다.

다 나쁘고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복 파이프의 수도꼭지를 틀기 위해 그런 일을 하라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교회에 다니면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보지 못한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땅의 백 성과 하늘의 백성

주전 1500년경,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출19:5-6,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

당시 이교도들의 세상, 더럽고 가증한 우상 숭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것들, 동성애, 낙태, 수간, 근친상간 등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함, 결국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냄(레18:28; 20:22)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녀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것들이 몸에 뱀, 모세가 40일 부재(출32),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 이집트의 아피스 황소 숭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들을 통해 메시아를 내려 하신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레11:45).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소유하지 않은 율법을 주신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례와 법규들을 주신다. 할례, 희생 제물 의식, 심지어 음식까지도 이교도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지키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당근이 필요했다.

또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육체적, 물질적 복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다. 1-14, 1-6, 9-10

또한 유대인들을 명석하게 하셔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인간적인 분야, 세상적인 분야에서 뛰어나게 하셨다. 전 세계의 모든 과학, 음악, 문화, 심지어 정치 등에서 유대인들이 뛰어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새 상속 언약 즉 신약 시대를 여셨다. (*)

이 신약 시대는 에베소서의 내용처럼 유대인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시대

교회(이들은)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그러면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마5장의 8복, 모두가 유대인들 대상, 그럼에도 내용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온유한 자들의 땅을 상속받는 것은 천년 왕국의 복, 땅은 지구를 말한다.

6:33이 핵심 포인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마16:24, 마10:37-38, 마19:27-29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라. 고후1 1,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딤후3:12

오해하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이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축척하고 중세 천주교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영국(영연방 국가),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다 잘 사는 나라들

사도 바울의 교리(살후3:10-12).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국민들 대다수가 근면하다. 잘 산다.

가장 못사는 나라를, 천주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국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처럼 순종하면 물질의 복, 자녀의 복(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다만 100% 확실하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그래서 골3:1-2를 기억해야 한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적인 복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수십 개가 넘는다.

1. 죄들의 용서(엡1:7)
2. 칭의(롬5:1)

3. 영존하는 생명(요3:16), 부활과 휴거

4.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1:4), 영화롭게 되는 것

5.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롬8:17)

6.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믿음(요일5:4),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

7. 은혜의 왕좌에 마음 놓고 나가 기도하는 것(히4:16)

https://truediscipleship.com/spiritual-blessings-in-christ-jesus/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의 원천과 통로(3)

2절에 보면 복의 원천이 나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마귀의 모든 계략, 사악한 인간들의 모든 방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

이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성령 하나님의 봉인: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4:30)

결론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받는 복

이 복을 받는 통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한 적이 있는가?

없으면 이 시간 신뢰하기 바란다.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물질의 복, 장수의 복도 더해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창세 전 선택과 예정의 의미: 칼빈주의는 인간이 만든 오류이다(엡1:3)

성경: 엡1:3-7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기록한 옥중 서신이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교회, 성도의 성화와 영적 싸움 등 여러 주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한 가장 심오한 내용을 품고 있다.

지난주,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차이 설명

요약: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처럼 순종하면 물질의 복, 자녀의 복(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다만 100% 확실하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3)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수십 개가 넘는다.

1. 죄들의 용서(엡1:7)
2. 칭의(롬5:1)
3. 영존하는 생명(요3:16), 부활과 휴거
4.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1:4), 영화롭게 되는 것
5.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롬8:17)
6.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믿음(요일5:4),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
7. 은혜의 왕좌에 마음 놓고 나가 기도하는 것(히4:16

오늘 〈 〉, 대단히 중요한 주제, 칼빈주의 함정과 오류: 장로교, 개혁신학 하시는 분들의 큰 오해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교리 설교(엡4;14)

하나님의 계획(4-7)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3), 이것들은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며(4)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7). 4절 이후는 'according as'라는 구로 묶여 있다.

4-7절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혹은 계획 안에는 1. 우리를 택하시는 것(4), 2. 예정하시는 것(5), 3. 받아주시는 것(6), 4.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쉬지 않고 글을 써 내려 간다. 그러다 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긴 문장이 나온다. 엡1:3-14절, 원래 그리스어로 한 문장, 총 200 단어가 넘는다.

핵심: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창세 전에.

칼빈주의 오해: 선택과 예정 설명(4-6)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

3-6절 전체적인 의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4-6절에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의 '우리'(총5회)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4절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자기들의 의지나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4절: 무심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건 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로 보인다. 우리가 택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칼빈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중 예정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을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받아 구원으로 예정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받아 영원한 정죄로 예정된다.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다.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4)

성경에 '선택하다', '택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나온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선택하다', '택하다'는 말은 칼빈이 이야기한 의미가 전혀 아니다.

4절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1. 하나님께서 우리(구원받은 자들)를 택하셨다. 개개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룹을 택하신다.
2. 택하신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말이 아니다.

3.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4. 무조건적 선택에 의한 구원이 아니다.

여기의 선택의 대상: 우리, 즉 구원받은 자들이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다.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5-6)

5-6절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1, 우리를 예정하사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정의 목적: 예정하사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신다(6절). 그런데 이런 찬양은 양자들만 할 수 있으므로 여기의 예정은 구원받는 자들이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2. 의문점, 우리는 구원받으면 무조건 양자가 되지 않는가? 맞는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한 사람이 양자가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양자로 택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양자의 모든 권리(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권리)는 그가 장성한 뒤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선언할 때 주어진다.

롬8을 보자.

14-15절(*), 구원받으면 양자 삼으시는 영 즉 성령님을 통해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양자로서의 모든 권리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선언이 되어야 얻을 수 잇다.

그 일은 언제 생기는가? 8:23(*), 우리 몸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 부활 혹은 휴거를 받아 우리의 혼과 영이 우리의 몸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날, 그 날 우리는 진정으로 양자의 모든 권리, 즉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8:17).

그래서 엡1:5-6에 나오는 예정은 구원받은 우리가 전적으로 양자로서의 상속 권리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의미이지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4-6절 총정리

1. 하나님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신다.
2. 하나님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하셔서 그들이 양자로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아 자신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다.
3.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고 예정하는 것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계획이다. 결코 임시방편 계획이 아니다.
4.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되도록 택하시고 예정하셨지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의지나 믿음에 상관없이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3-6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1. 3절과 4-6절을 떼어서 읽으면 안 된다. 전체를 보아야 한다.
2. 여기의 '우리'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여기의 '우리'는 13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다.(*) 복음이 제시될 때 듣고 신뢰한 자들이다. 믿은 자들이다.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다. 구원받는 자들은 단순히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는다. 엡2:8을 보라. (*)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3,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지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1. 칼빈주의자들이 무조건적 선택 및 예정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삭제하려는 단어가 4절에 들어 있다. (*)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4절을 보자.

우리는 4절대로 세상의 창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믿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무시하고(간과하고)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는 것만 강조한다. 그래서 고의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뺀다.

'그리스도 안에'의 중요성

바울은 엡1:1-13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자그마치 11번이나 한다(1, 3, 4, 6, 7, 10(2번), 11, 12, 13절에서 2번)

1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
7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8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9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10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12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in whom, in Christ)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1장의 해석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에베소서에는 전체적으로 무려 40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고

말한다. 그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해석이 안 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다. 거룩한 자들이 된다. 최종적인 양자가 된다.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가?

답은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14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순서이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는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아담 안에 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다.

즉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창세 전에 잇는 것이 아니다.

고후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골1:13-14,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였다는 말이다. 이렇게 믿은 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듯이 복음이 제시될 때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In Christ(38), In Jesus Christ(4), In Christ Jesus(40), In Jesus(3), 총 85회, 바울 신학의 최고봉

어떤 사람들의 반론

그런데 왜 세상의 창건 전에 택하셨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느냐?

1.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떻게 바울이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2. 계13: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분이시다.

3. 개역 오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론

엡1장 3절의 복, 즉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2:6).

그런데 이것은 임시방편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것이다.

롬11:33-34

그 계획에는 1.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들어 있다.

2.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들어 있다.
3.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행4:12).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4. 이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였는가?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과 자유 의지: 칼빈주의 함정을 조심하라(엡1:4)

성경: 엡1:3-7

대다수 사람들은 교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않지만 교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딤후3:16-17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이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1:4-6절에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잘못 읽고 오해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주류, 칼빈주의가 대세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을 가르친다.

칼빈의 이중 예정(*), 기독교 강요 21장 5항

즉 엡1:4를 잘못 이해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 이르도록 정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극도의 숙명론, 잘못되면 자만심, 행위 구원 등의 폐해가 나타난다.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 의롭지 못한 하나님, 이것은 복음 전파에 큰 방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 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구원시켜야) 그 뒤에 비로소 그는 믿을 수 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믿는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전자(택자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100% 구원받고, 후자(비택자들)는 저항할 수 없는 정죄로 인해 100% 지옥 정죄를 받는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은 이미 짜인 각본대로 지금 살고 있다(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성경에 없다.

성경은 사람이 자유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요3:16).

구원받는 것과 관련 된 신약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복음이 제시될 때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는다.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구절 100개,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3:16

수백 구절: 회개해야 한다. 주님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을 부인하면 그는 자기 뜻이나 교회 목사나 교단이나 인간 스승이나 전통을 믿는 자이다. 눈먼 안내자 혹은 눈먼 안내자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 도랑에 빠진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런 데서 떠나야 한다. 복음에 반응하여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사람 편에서의 구원 과정

지난 시간, 엡1:4-6절의 택하는 것과 예정하는 것은 실제로 개개인의 구원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다시 설명한다.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람들(그룹)에 대한 택함과 예정이다. (*), (*)

사람 편에서의 구원 과정 엡1:13-14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14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순서이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다.

오늘〈 〉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의 예지와 예정과 선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과정은 항상 동일하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예지, 예정, 선택은 구원과 관련될 것들이다.

1. 하나님의 예지(미리 아심), 예정, 선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들의 행적을 아신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 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다.

2. 구원의 복음이 개개인에게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것을 아신다.

3.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심을 통해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자들로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4.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다.

미리 아심을 빼고 나머지만 말하면 안 된다.

5. 이렇게 구원에 관한 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 예정과 선택을 하시지만 역사(시간) 속에서는 각 사람이 믿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예지 구절

1. 벧전1:1-2, (*)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순서, 2절의 선택받은 자들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되고 예정이 된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을 미리 보시고 구별하셔서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2. 로마서 8장 28-30 (*)

2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의 우리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다 믿어서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엡1;13).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29-30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들(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이 된다. 여기도 사실은 그룹이 예정된다. 개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다(29).

그리고 역사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칭의, 성화, 미래의 영화(30)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한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아심이 가장 먼저 나온다.

하나님은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창세 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그들은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무조적적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

1. 엡1;4의 4절의 우리는 19절의 믿는 우리와 동일하다.

2. 엡2:8, 9를 보라. (*)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을 받는다(4).

그러므로 엡1:4를 읽고 칼빈주의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1장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고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어떤 진리의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그 진리의 모든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된다.

자, 그러면 행13:48을 보도록 하자.

(*) 행13:48,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파이퍼, 맥아더 등 등: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만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한다. 벧전1:1-2, 롬8:28-30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드디어 때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믿고 구원받았다.

즉 사람들의 눈에, 성경 기록자 누가의 눈에 드디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이미 ordain되었다. 구원받는 자들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구원의 대열에 집어넣으셨으므로

클라렌스 라킨의 증언

선택과 자유 의지 편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예언 자체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들을 미리 결정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했던 일을 반드시 하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일들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견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미리 아심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이거나 강압적인 선택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 의지와도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1850년 10월 28일에 태어날 것과 1869년 5월 어느 저녁에 YMCA 기도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아신 대로 그분께서는 필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정해 주시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제가 예술적 재주를 갖고 태어나 선도의 형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목적을 위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받아 이처럼 성경에 대한 책들을 쓰고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제가 종교적 성향을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자연적으로, 즉 나 자신의 내적 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며 제 밖에 있는 외부적인 힘, 즉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힘에 의해 저의 자유 의지에 역행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저의 소망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사람의 자유 의지는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자유 의지 문제: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행13:38)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며(행17:30)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청해야 한다면(고후5:18-20),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진실한 약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택하셨으므로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후보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다 구원받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다."

결론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예지 예정 선택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 의지 믿음, 인간의 책임이 있다.
당신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였는가? 믿었는가? 불렀는가?
그리했어야 당신은 하나님 편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복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죄들의 용서를 얻었다(엡1:7)

성경: 엡1:7-10

지난 세 시간, 1.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3). 2. 이것은 창세 전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4). 그 계획은 a)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b) 우리를 양자로 삼으사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엡2:6)

바울은 흥분해서 엡1:3-14절, 원래 그리스어로 한 문장, 총 200 단어가 넘는 것을 단숨에 적어 내려간다.

오늘 〈 〉,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현재 누리는 복, 구속, 죄들의 용서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3장에서 필요한 부분 인용

1. 성도들의 영원한 찬양 제목: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밧모섬에 추방된 자신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예수님은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구속(救贖)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왕좌에 둘러서서 어린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래의 기본 주제는 한마디로 구속이었습니다.

계5:9-10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할 주제가 많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자기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또 다른 짐을 지지 않고 또 다른 고통을 맛보지 않으며 또 다른 두통거리를 갖지 않고 한순간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궁전은 감격적인 한 가지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5: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것을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늘에 있는 의(義)의 문을 지날 수 없습니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의 황금길을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 있으며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2. 구속의 필요성과 의미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얻는 구속(救贖)입니다. redemption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죄들의 용서이다(7)
2.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3.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즉 우리의 죄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죄 문제 해결, 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상관이 있는 이 세 가지 기본적 이유를 깊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속'(redemption)이란 단어의 의미나 혹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머릿속에 확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구속하다'(redeem)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1. 되사다 또는 회복시키다(To buy back, or recover).
2. 몸값을 지불하다(To ransom).
3. 속죄하다 혹은 죄에서 구해 내다(To atone for, or deliver from sin).

예수님의 피로 얻는 구속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엡1:7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의 의미 조금 더 보충 설명

호수 근처의 조그만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보트 모델을 만들어서 호숫가에 묶어 두고 타기도 함

그런데 폭풍우가 불어서 보트가 멀리 날아가 버림, 찾을 수가 없음, 깊은 슬픔에 빠짐, 매일 호숫가에 가서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 못함, 어느 날 마을 상점에 갔는데 자기 보트가 거기 전시되어 있음, 내 것이니 달라고 하자 주인이 어떤 어부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말함. 그러니 돈을 주고 그것을 살 수밖에 없음. 그 소년은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보트 값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보트를 사서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듦. "이제는 너는 두 배로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돈을 주고 너를 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심,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되사심. 이것이 구속이다.

구속이라는 말을 현시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는 로마 제국, 삼분의 일이 노예, 노예 시장, 구속 이런 말을 바울이 쓰면 에베소 성도들을 쉽게 그 뜻을 이해했을 것이다.

3. 죄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묶이지 않았던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히4:15). 이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며 스스로 원해서 된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 묶여 있으며 죄에서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u>요8:31-36</u>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종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 안에 있는데 "죄는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약1:15).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서 죽는다면 둘째 사망인 불 호수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계20:14; 21:8).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무기력한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으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되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되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존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와 공평과 주권 속에서 죄가 오직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만 용서되고 사면될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u>레17:11-12</u>

당신은 오직 피만이 죄 많은 우리의 혼을 속죄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u>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9:22).</u>

죄인의 피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반드시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며(롬6:23) 죄에 속박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완전한 피를 흘리며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처녀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마리아를 통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3.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필요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관 속에 마리아의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물려받았다면 그분의 피는 죄로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자신의 아들이 기적적인 처녀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죄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 없는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신약에서 입증하셨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마1:22-23).

오직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더럽혀지지 않은 피를 가지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피를 지닌 채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죄로 더럽혀진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런 피로는 결코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피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분의 처녀 탄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디한 박사, 외과 의사(*), '피의 화학적 성질', 최근의 과학적 발견, 아기는 수태될 때에 자기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수탉의 정자가 있는 달걀과 없는 달걀

달걀 자체는 난자, 그 안에 수탉의 정자가 들어간다. 온도를 맞추어 주면 부화한다.

부화하면서 병아리 그 자체에서 피가 생성된다. 핏줄, 암탉이 피를 주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 정자와 난자의 결합, 생명체, 그 안에서 피가 생성됨, 엄마와 아기 사이의 탯줄은 영양분, 노폐물 운송, 그러나 엄마의 피는 전혀 아기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아기를 수태한 어머니는 자기 자궁 안에 있는 아기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 속에 들어 있는 죄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피는 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또한 오류가 없는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1:20,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수태됨

Gospel coalition: 존 파이퍼, 스프로울 등이 속한 개혁주의 기관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blogs/kevin-deyoung/why-does-it-matter-that-jesus-was-born-of-a-virgin/

Why Does It Matter that Jesus Was Born of a Virgin?

남자가 자식들을 낳을 때 죄성이 전가된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다(마1, 창5 등).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행20:28).

위의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더럽혀지지 않은 피로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요8:36).

저는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쁜 날에 저는 하늘의 왕좌 주위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5:9)

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되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무엇을 살 때 당신은 보통 그 값을 돈이나 은 또는 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구속하시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구속은 죄들의 용서이다(7)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알베르트 슈페어(*), 1905-1981, 나찌 독일의 군수부 장관

2차대전 패배후 전범 재판, 24명의 전범들 중 유일하게 유죄 인정, 20년 형기를 채움

형기를 채운 뒤 출소, 인터뷰, 기자 "언젠가 죄책은 결코 용서될 수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말씀수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였기에 내 양심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죄책감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인가요?" "네 저는 제 죄책감을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 이후 36년 동안 살면서 참회를 하고 20년 수감 생활로 형벌을 받고 자서전을 쓰면서 수도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했지만 자신의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안

히10:16-18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은 오직 한 곳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롬3:23-24).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1:12-14).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에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종교와 철학을 포함하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그분만이 이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함 – 그분을 당신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롬3:24).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배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되사심. 이것이 구속이다.

구속의 이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기원한다.